





서가풍경

책들로 우거진 작은 숲

국민대학교 삼림자원과 전영우 교수의 서가

전영우 교수의 서가는 울창한 숲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커다란 느티나무 등치가 눈에 띈다. 전우익 선생이 선물한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내딛자 은은한 송진향이 코를 어지럽힌다. 그 향의 발원지는 어디일까? 둘러보니 왼쪽 벽면의 책꽂이에 아이 머리통만한 송진덩이가 걸려 있다. 역시 전우익 선생이 선물한 것이다.

그리고 보니 책꽂이 또한 작은 숲이다. 그 속에는 온갖 나무들이 뿔뿔하게 심어져 있다. '자작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거제수나무'도 있다. 나무 사이의 빈틈에는 '우리 꽃 백가지'가 환하게 피었다. 그리고 그 꽃들의 덩굴 속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가 놓여 있다. 소로우가 살던 '월든'의 호숫가도 저만치 보인다. 나무들이 이룬 아름다운 풍경이다.

전교수가 애장본을 펼쳐보인다. 존 섉스틴의 《Listen to The Trees》. 어느 일본작가의 자작나무 사진집도 꺼냈다.

“우리의 숲에 관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사진을 곁들여서 말입니다. 사진이 많고 글이 적으면 좋겠지요. 우리 숲은 외국의 어느 숲보다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전교수는 세계 4대 조림 성공지의 사례들을 모아 책을 쓸 예정이다. 앞선 세대가 만든 조림지를 소개하는 이 책은 《나무와 숲이 있었네》의 후속편이다.

세상에는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동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전영우 교수의 울창한 숲에도 저녁이 내리고 있었다. - 최갑수 기자

